

아미타춤 구품연지회 이색포교

회원 9명 모두 조계종 여성포교사

"이 도량을 불법기피 충만하도록 수호하시는 불보살님께 연꽃 헌화 하옵니다. 성수하여 주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3일 영동포교도소 불교법당에는 '백여명의 재수자들이 아름다운 불교춤을 흠뻑 빠져들었다. 춤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김동호 신심을 일으키며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아미타춤 구품연지회(회장 오영희) 회원들이 영동포교도소 재수자들을 위해 출현무대를 펼쳤기 때문이다.

장 오영희씨를 비롯 9명의 회원 모두가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중인 50~60대의 여성분자들이다. 지난해 건봉사에서 열린 전국염불만일회에서 처음으로 관공무를 선보인 이후, 올해 4월 아미타춤 구품연지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돌입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춤으로 표현하는 포교방법에

와 군부대 불상점안식, 장애인초청법회 등 실행현장에서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춤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보성 대원에서 철야기도를 하며, 현장스님으로부터 향공(香功)을 직접 배우기도 했다. 향공은 티벳불교의 개산조인 연화생대사가 말세증생을 구원하기 위해 베푼 춤은 기공법이다. 또 한국전통무용의 기반을 다지기위해 국수호씨의 전통무용공

불교 향공에 한국전통무용 접목

사찰·군·교도소 법회 찾아 춤공양

김 호흡과 수인(手印)으로 한층 작 한동작을 펼쳐보이며 선정에 잠긴 듯 고요하고 오묘한 감동을 전하는 불교춤을 바라본 재수자들과 그들을 위해 춤을 추던 아미타춤 구품연지회 회원들 모두가 마음의 고개를 통해 불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다. 고계 최초로 경전음악 춤 포교를 시도한 아미타춤 구품연지회는 회

상의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교계에 이같은 포교활동을 하는 단체도 없어 내친김에 보다 적극적인 실행활동으로 해보자는 생각에 의기투합해 시작한 것이다. 정식 창단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관공무와 법문상전 아미타춤 등을 정토사 설산스님에게 선보여 인정을 받기도 했으며, 그동안 각종 사찰법회

연을 직접 보러다니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하기도 했으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안국동 금연해금 빌딩 지하 1층 연습실에서 꾸준히 무용연습을 하고 있다.

이날 영동포교도소에서 선보인 춤은 김수현 작곡 팔만대장경의 '구천으로 가는 길' 천상의 문에서를 배경음악으로 우리 전통춤



◇군포교현장에서 아름다운 동작과 수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춤으로 표현하는 아미타춤 구품연지회.

사위와 불교의 향공(香功)기법 가운데 하나인 법문상전(法論上典) 법문을 구리는 모습을 손으로 표현으로 작법한 것이다. 춤생이 지극한 초발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수행정진하여 무명과 고통에서 벗어나 불법을 널리 베풀고, 스스로 보살도를 이룬다는 것을 춤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아니어서 미숙한 부분도 많지만 춤 속에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고, 우리의 역사와 불교의 수행기법이 어우러져 있다"면서 "실행활동에서 우러나온 깊은 신심과 경건공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교춤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포교장르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ele@buddho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⑰



한 감 진 (한진흥업주식회사 회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매일 운동을 하며 채식 위주로 소식을 한다. 과욕을 부리지 않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한진흥업주식회사 한감진 회장(76)은 철저한 건강을 행해왔다. 얼핏 보기에는 건강에 너무 매달리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다. 하지만 한회장에게 그 지 일상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런 일상을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비결은 따로 있다. 바로 깊은 신앙생활이다. 그래서인지 나이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려진 걸음걸이를 빼고 70이 넘는 고령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의 건강한 모습이다. 특히 큰 체구에 어린이아처럼 깨끗한 얼굴과 미소가 매우 인상적이다. 한회장이 70이 넘는 인생을 7살 아이의 얼굴로 살 수 있

폐결핵·장수술·다리골절로 고생 돈독한 신행 건강 도침은 비결

게 된다는 이유가 있다. 서른살에 폐결핵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데다 원한살 때는 장수술을 했고 예순살때는 다리골절을 입어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그러나 이런 병고를 이겨내기 위해 한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에 더욱 매달렸다. 어떤 병든 정신력이 뒷받침돼야만 제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돈독한 신행생활이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한회장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1시간여동안 남산에 올라 운동을 한 후 아침식사를 전 예뻐 올린다. 삼귀의를 시작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경전을 독경한 뒤 축원을 올린다. 30여분간의 예불동안 한회장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물론 잡자리에 들기전 저녁예불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하루는 편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벌써 40년째 '평상심'을 유지하며 자신을 다스릴 수도 있게 됐다. 물론 때로는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욕심을 내지 않고 무리한 일은 피한다. 일을 즐기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 이러니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회장은 누가 건강비결을 물으면 "부처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답한다.

돈독한 신앙생활을 통한 철저한 자기관리. 이것이 한회장의 건강비결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opia.com)

방송사 한가위 특집 '풍성'

BBS 역사기행 '민족의 뿌리...' 눈길

K-1TV 국악한마당·EBS-TV 어린이 명창 방영

민족 최대의 명절인 팔월 한가위. 풍성한 차례상만큼 각 방송사의 특집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우선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23일부터 3일간 대만, 음악, 한가위 불가와 고통편, 다큐멘터리 등 다채로운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불교방송의 이번 특집 프로그램 눈길을 끄는 것은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오후 5시55분~오후 6시), 고구려 역사의 근원지였던 출토성에서부터 발해 불교문화의 중심지인 중국의 돈화까지 숨겨져 있는 민족의 역사를 찾아 순례한 역사기행 다큐멘터리다. 또 헤거스님(금강선원 원장)과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출연한 불교식 차례 의식과 명절의식의 불교화에 대해 설명하는 '생활속의 불교 이야기'(오전 10시55분~오전 11시50분)와 우리 가락과 민요를 한가위 전통 풍습과 함께 소개하는 '팔도소리 한마당'(저녁 7시10분~저녁 7시55분) 등은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돋구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집에는 이외에도 △희망과 기쁨으로(오전 7시55분~오전 8시) △특별대담 '원로에게 듣는다'(오전 8시10분~오전 9시) △'우리의 명절 한가위 환절일입니다'(오전 11시55분~낮 12시55분) △혼혼한 정을 나누시다(저녁 6시



15분~저녁 7시) △추석, 어제와 오늘(저녁 8시55분~저녁 9시) 등이 방송된다.

KBS-1TV는 25일 아침 10시부터 60분간 안숙선, 김성녀, 박동진 등 국내 유수의 국악인들이 흥을 돋우는 '추석특집 국악 한마당'을 마련한다.

또 EBS-TV는 미래의 명인, 명창을 꿈꾸는 어린이들의 국악 기량을 한껏 뽐낼 '제4회 어린이·명인 명창전(사진)'을 24일 오전 10시부터 60분간 추석특집으로 꾸민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철저한 자기수행이 불교 교육"

김중서 박사, 토요여성강좌서 강의

조계종포교원 산하 가정 불교 여성개발원 설립을 위한 토요여성강좌가 11일 오후 2시 30분 포교원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불교교육'을 주제로 강연한 김중서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철저한 자기수행과 개발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교육방법이 바로 불교적 교육"이라면서 "미래 사회의 불교여성의 중심축이 되기위해 불교여성개발원은 연구, 교육, 봉사를 과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좌에는 20대~60대 여성불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청교련 문화재보호 활동

대한불교청교련화해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12일 서울 종로 및 탑골공원(사진)에서 '99청교련자연봉사한마당'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청교련들은 우리 문화재를 내손으로 보호한다는 자세로 종로, 종묘공원, 정전앞, 탑골공원 등의 잡초제거 및 공익내 휴지줍기, 껌떼기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서울시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종교생 100여명이 참가했다.

BBS 명예통신원 위촉

스님·재가불자등 34명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일 종단 및 실행단체의 소식을 청취자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스님 및 재가 불자 등 34명을 선정해 'BBS 불교방송 명예통신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선정된 통신원들은 앞으로

방송단신

로 고계 행사는 물론 방송에 직접 출연해 각종 법회와 효행 및 신행 등 미담사례를 소개한다.

불교만화 철인사천왕

SBS-TV 17·24일 재방

올해 2월 국도극장을 비롯해 전국 개관관에서 인기리에 상영됐던

불교 애니메이션 '철인사천왕'이 17·24일 양일간 안방극장 시청자에게 선보인다. 일본 만화영화의 범람에 맞서 SBS-TV가 재방영키로 한 것. 국내 최초로 디지털 3D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응용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 영화는 삼장법사에 의해 감화된 여덟 요괴가 지구를 파괴하려 하나 철인사천왕이 이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성명서

이땅에 불교가 전래된 지 1600여년, 온갖 흥망성쇠를 당하여도 통도사만은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키고 한국불교의 지주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일제 불교 36년 불교정신 말살정책에서도 비구승들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의 올바른 판단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은 탄생하였다.

그러길 어언 50여년째, 어느때는 총무원장 자리를 서로 양보하고 사양하면서 도의 근본을 위주로 살아 왔다.

세속의 변화에 승가도 급속한 변화가 뒤따라서 총무원장 3선을 강행하려고 하였다. 그때가 1998년 우리는 율하종정 큰스님을 모시고 3선은 절대 불가함을 외치며 승려대회에서 삼선 저지를 하였다.

그러나 종건부에 탄착한 그들은 70여명의 스님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온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7000여명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총무원 청사를 초토화 시켰다. 당시 지키던 스님들을 모두 불법자요 깡패 투성으로 몰아 부치면서 함께 수행정진하던 도반 사형사제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 최고의 원인 제공자는 지금도 의기양양해 하면서 불이익은 전연 당하지도 아니하고 온갖 정부행사 또는 종교행사에 대부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중에 온 통도사가 종정스님을 중심으로 반대투쟁을 하는 동안 기회주의자들은 수수방관만하고 기회만을 엿보았다. 공권력에 청사를 강점한 집단들은 통도사에 온갖 음해와 분란을 조장하고 영축총림을 해체하고 해남사, 문수사, 관룡사를 적역사찰로 힘으로 몰아 부쳤다. 통도사 방장 율하큰스님은 출산지법에 부당함을 재조하여 1999년 8월 25일자로 이유있다 인정되었다.(99카합 931)

이러한 혼란을 틈탄 일부스님들은 2일후 오고산 총무원측으로 빌붙어 주지적 무대리를 임명받아 불랑 폭력배와 위장승려들을 동원하여 온사이며 방장큰스님을 힘으로 몰아 부치려다 쫓겨났다. 세속에는 부모를 고발하는 폐륜아도 있다는 소식은 들어도 신성한 종교단체에서 자기를

평생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던 온사를 주지적을 위하여 법원에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까지한, 하늘도 울고 땅도 울어야 할 통탄할 지경에 이르렀다. 과연 주지적을 위하여 이렇게 폐륜적인 행동을 하여야 하는가, 온사의 후광으로 평생을 어려움 모르게 잘살아 오던자들이 혼란하다 하여 틀을 비집고 아귀다툼식의 기회주의자여야 되겠나. 또한 주지적을 받기 위하여 온갖 감언이설로 본말사 주지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정당한 양 신문에 지지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통도사 전대중의 뜻이 아니었으며, 중무소도 모르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방장 율하큰스님은 어떻게 하든 화합이 목적이란 굳은 신념 하에 화합의 서명날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방장큰스님의 절대적인 뜻을 따르겠다는 140여명 제재승과 본말사 주지스님들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오늘까지는 이념과 생각차이로 발걸음을 달리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문중이며 온사상좌 사이며 사형사제 지간이 아니겠는가. 우리서로 내일을 위한 오늘의 한생각을 돌이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통도사를 위한 일이며, 화합의 길이 아니겠는가.

통도사 대중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방장이신 율하 큰스님을 모시고 수행과 정진을 목적으로 한다.
1. 통도사는 한 문중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화합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방장이신 율하큰스님의 인정없는 주지는 절대 불허한다
1. 분란을 조장하는 몇몇 스님들은 더 이상 분란을 조장하여서는 안된다.

1999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전계대회상 현산스님, 종회의원 정각스님, 옹촌 관음사 학과, 자비원장 진철, 석산사 주지 영운스님, 대원, 상후, 내원사 주지 해동스님, 지의, 진성, 현도, 송일, 상오, 도음, 하담, 해준, 우진, 성훈

노전암 능인, 성운, 인행, 성기, 해성 표충사 - 신하, 무봉사 - 도문, 석골사 - 선운, 흥제사 - 범마, 용공사 - 정우, 오목암 - 영현, 서원사 - 지인, 백락선원 - 성현(강원도), 서원사 - 성민, 구룡사 - 정우, 각광, 성화, 성진, 흥재, 서래사 - 자명, 남산사 - 지용, 해운, 정공암 - 종현, 봉곡사 - 각성, 각현(대전), 천경사 - 수원, 문서포교원 - 지인, 법경, 지산사 - 지용, 지봉, 연화사 - 도용(경기도 성남시) 보성암 - 허운(안양시 동안구), 반야정사 - 서원(서울 강서구) 오성암 - 민천, 극락암 - 정호, 덕운, 오목암 - 해원, 보문사 - 신명, 산재(밀양), 금강암 - 선주, 청연사 - 원진, 서운암 - 성파, 동진, 법화암 - 범운, 비로암 - 원명, 금수암 - 여산, 소림사 - 허주, 보문암 - 덕중, 보타암 - 재근(성수), 귀운암 - 상우, 백련암 - 정행, 칠성암 - 진성, 사명암 - 동원, 안양암 - 무애, 서죽암 - 용성, 청송암 - 종래, 법천, 원경사 - 지일, 보현사 - 지할, 추서암 - 수만, 반야정사 - 영하, 목대우(서울 공평동), 덕천사 - 원천, 법천사 - 현대, 대안사 - 문성, 악성암 - 석진, 정법사 - 지태, 계원사 - 현대, 문수사 - 도각, 동축사 - 용문, 미타암 - 해오, 용운, 법수원 - 석산, 백련암 - 자고, 백양사 - 지은, 서원, 창녕포교당 - 야산, 양산포교당 - 혜철, 풍화사 - 우민, 석봉사 - 진성, 수도암 - 중선, 무량암 - 관우, 통도사 - 성경, 법상, 원경, 각운, 정성, 관문, 무상, 성오, 원산, 부현, 해원, 현호, 현장, 지수, 대주, 보문, 해운, 성일, 정일, 영노, 각운, 명오, 원각, 정현, 덕우, 초현, 종성, 양진, 법기, 자하, 지봉, 오십, 지안, 거산, 동하, 명일 (이상 무순)